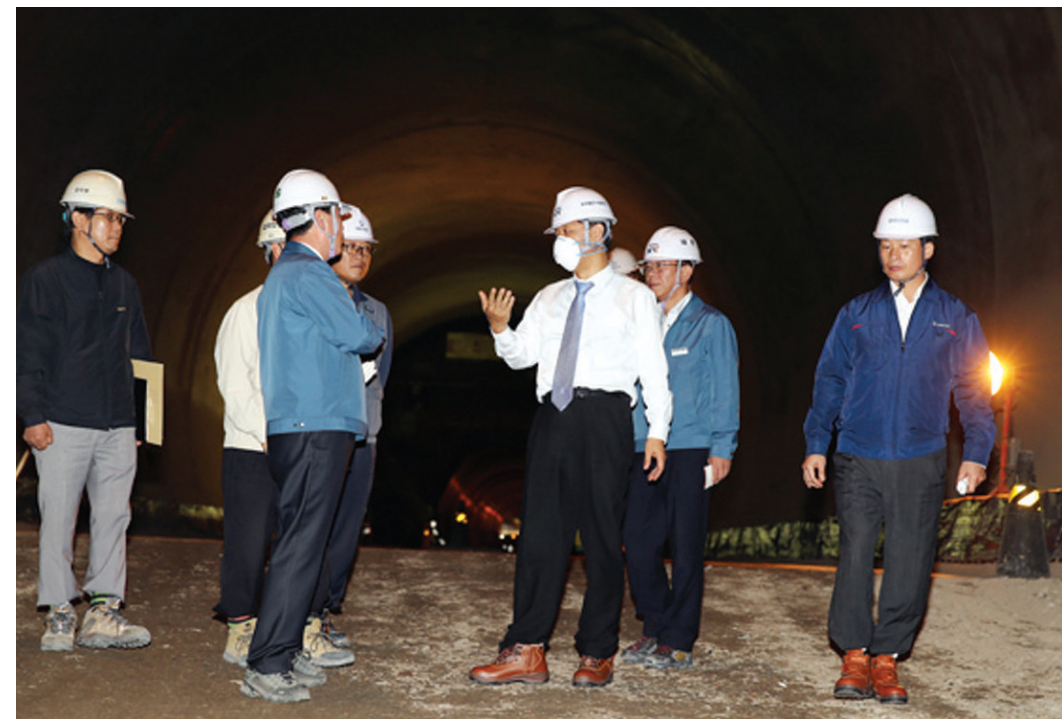


CEO 동정

포항~삼척 등 영남본부 철도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10월 4일 포항~삼척 자령터널, 울산~포항 부조신호장, 나원터널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해 철도건설 현장의 재해발생률을 2020년도까지 0.05%까지 낮추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 터널 내 전차선로 지지물 설치 완료

- 10만km 이상 시운전 거쳐 '14년 말 개통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간(89.7km) 중 갈산터널 등 14개 터널(28.7km)의 전차선로지지전주(전철주) 1476개소를 2013년 9월 현재 설치 완료했다.

터널 내부의 전차선로를 지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철주 설치공사는 바닥에서 약 8m 높이의 천정에 시행하기 때문에, 터널이 전체 구간의 약 31%를 차지하는 오송~익산간은 토공이나 교량이 설치되는 여타 구간보다 난공사에 해당한다.

본부는 작업자 탑승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고소(高所)작업차와 전철주 인양용 크레인장비를 투입하고, 숙련된 기능공들을 참여시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지물 설치 차량

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로 설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부는 현재 오송~익산간 전차선로 설치 공사의 32%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급전선 및 전차선 가선 공사도 2014년 6월까지 완료하여 2014년 말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도심 삼성지하차도 C/P구조물 완공

- 안전시공 및 대전도심 3단계 운행선 변경 청신호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10월 6일 경부고속 대전도심 통과구간 내 삼성지하차도의 PSC-BOX를 안전하게 거치함으로써 대전도심 6-2구간 C/P구조물을 완공했다.

경부고속 대전도심 3단계는 기존 철도시설을 철거하여 신설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공사장을 인접하여 열차가 운행되고, 하부에 도로가 설치돼 공사에 어려움이 컸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통과구간 건설사업의 '14년 적기 완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장봉희 건설/기술처장은 PSC-BOX 거치 현장작업에 임하여 안전시공을 당부했으며, 도로교통 통제와 중량물 인양에 따른 어려움에도 안전하게 거치 완료한 현장근로자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대전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교통방송 등 관계기관에 교통통제를 홍보하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안내판)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사전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기사판

주요뉴스 ('13.10.07~'13.10.13)

- 철도공단, 농촌일손돕기 구슬담 (충청투데이22)
- KTX 포항역사 기공... 내년 12월 완공 (동아일보14, 경북일보07)
- "김천~거제 철도건설 조기 착수" (경북일보08)
- SOC사업 대거 민자로 넘어간다 (국민일보06)
- 철도 정선 전해선 민간에 팔기로 (경향신문16)
- 대구선 폐철도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경북일보06)
- 화악교 같은 국책사업 "추진방식 수색" 목소리 (한국일보01)
- 철도공단·적십자사 사랑나눔 헌혈행사 (충청투데이22)
- 경의선 숲길 조성사업 2단계 구간 오늘 착공 (세계일보12)
- "경춘선 전철 청량리까지 연장" 19만명 서명 (동아일보16A)
- 행복주택, 오류·가좌지구 연말 착공 (한국경제29)
- 황우여 "국책사업 예산상한제 도입" (매일경제06)
- 영훈이 있는 관료가 보고 싶다 (동아일보30)
- 남원주 재전 '백운터널' 2016년 완공 (강원도민02, 강원일보02)
- 경춘선 남양주 천마산역 11월 개통 (경인일보21)
- 서울 잇는 GTX 조기건설 요구 높아져 (동아일보16)
- '실세'에 지역구예산 집중 (매일경제06)
- '철도 민영화' 본격화 논란 (경향신문02)
- 퇴직한 직원 가족 특혜 채용 공공기관 '고용 세습' 막는다 (중앙일보B04)
- 한국 공무원 부정부패 세계 4위... KDI "폐쇄적 임용제도 때문" (조선일보B02)
- 광역철도 사업 '국가·지자체 비용부담 비율' 내년부터 적용 (경기일보04)
- 적자 논란 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세계일보11)
- 용산 개발구역 해제...최종 '백지화' (한국경제29)
- 공공공사 급감... 중경 건설사, 사람 줄여 버린다 (조선일보B04)

헌혈로 이웃 돕고, 건강도 지켜요!

- 최근 5년간 임직원 2000여 명 헌혈 참여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10월 7일 본사에서 헌혈 희망 임직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2013년 하절기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공단은 2004년 출범 이후 매년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서 '사랑 나눔 헌혈기간'을 지정하여 임직원의 헌혈을 독려했고, 헌혈을 한 임직원에게 사회공헌 마일리지 부여하는 등의 지원 결과, 2008년 이후 20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이날 헌혈한 한 직원은 "헌혈로 이웃과 동료도 도울 수 있고, 나의 건강도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 1석 2조"라고 말하며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로 불우이웃 돕기

- 1사1촌마을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 2년째 시행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 KR봉사단은 10월 4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논산시 황산별 참살이 마을을 찾아 공단이 조성한 '사랑의 텃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해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

수확한 고구마 10여 박스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전 '동구다기능노인복지관'과 '나자렛집'에 나누어 주었으며, 농기구 점검 등의 봉사활동도 펼침으로써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마을주민들을 도왔다.

한편, KR봉사단은 2012년 봄부터 황산별 참살이 마을과 1사1촌 결연을 맺고 '사랑의 텃밭 조성' 및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장용 배추, 고추를 직접 가꾸고 감자, 고구마 등의 텃밭작물을 수확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영지원실은 11월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봉사단 농촌문화체험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결연마을과 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본부, 명예보상담당관제도 활성화 위한 워크숍 시행!

- KR 정부3.0 비전 및 전략 구현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9월 26일 해운대 휴양소에서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구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명예보상담당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시행했다.

워크숍은 정철상 사설/지원처장을 비롯한 용지부 직원들과 명예보상담당관,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회와 보상이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감정평가사 특강으로 진행됐다.

본부는 앞으로 토지보상 시 명예보상담당관과 공동으로 보상업무 절차와 진행사항을 협의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시키며 보상과 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 시행으로 명예보상담당관 제도의 조기정착과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본부 임경덕 기자)



경조사

- 영남본부 시설/지원처 오연석 차장 장인상 - 발인 : 2013년 10월 13일
- 강원본부 건설/기술처 김철순 사원 본인인 - 일시 : 2013년 10월 19일 오후 13시 - 장소 : 강원 춘천시 근약동 265-1 강원랜드문화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